98. **`근대성의 성별(gender of modernity)은 무엇인가?'**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근대성의 성별이라고? 응, 그건 물론 남성이지. 많은 이들은 생각할 것도 없이 대답할 것이다. 우리의 일반적 관념 속에서도 근대성은 논리와 인간의 이성, 과학, 자연의 정복 등의 남성성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며, 근대성을 비판하는 포스트모던의 시각이나 페미니즘의 시각에서도 근대성은 남성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책의 서두를 보자마자 나는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미리 예감했던 것 같다. 그래, 이것은 근대의 남성성을 비판하는 책일 거야. 그러나, 나의 예감은 몇 장을 채 넘기기도 전에 틀린 것이었음이 판명되고 말았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동안 내가 근대성에 대한 나의 태도에 별 반성 없이 얼마나 앵무새같은 말들을 반복해 왔는지를 의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근대성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근대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는, `참신한' 책이다.   
  
*근대 시기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합리화, 생산성, 억압 등 남성적인 특성의 지배를 강조하긴 하지만, 근대적 주체성의 수동적이고 쾌락적이며 탈중심화된 성격에서 입증되는 서구 사회의 여성화-그것을 찬성하건 비난하건 간에-를 지적하는 텍스트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p26-27)*  
  
   리타 펠스키는 페미니즘 이론의 렌즈를 통해 근대를 다시 읽고자 하는 욕망에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그의 이러한 욕망은 위의 인용 글에 나타나듯이 지금까지의 근대성 논의가 근대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이분법 속에 갇혀 있었으며 이러한 이분법이 근대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일편 가로막고 왜곡시켰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오히려 근대를 이 두 가지가 뒤엉킨 모순적인 과정으로 본다. 그는 근대의 복잡성과 모호성에 천착하여 근대의 구체적인 문화적 텍스트들을 분석한다. 굳이 근대가 탈근대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그가 보는 근대성은 분명 이것이다라고 일반화시켜 버리기에는 놓지는 것이 너무 많을 단어인 것이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계몽의 변증법』(1947)이라는 책에서 이미 근대의 이러한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의 자유가 계몽적 사유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어떤 의심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것은 우리의-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전제를 이룬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뒤엉켜들어간 구체적인 역사적 형태나 사회제도 뿐만 아니라 이 계몽 개념 자체가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퇴보의 싹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믿는다.(계몽의 변증법 p49)*